

'교육 책무성 정책 사례에 대한 미시적 실증 분석'에 대한 토론

한유경(이화여자대학교)

-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교육 책무성(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력향상중점학교)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 실증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 점은 매우 의미 있음. 특히 최근 우리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한 우리들에게 '교육 책무성 정책 사례에 대한 미시적 실증 분석'에 관한 발표와 토론은 시의적절하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됨.
- 발표자께서는 '교육 책무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다양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하여 심도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책무성 정책의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학업성취도와 같은 양적 지표 이외에 학습과정 변인(학습시간, 학습노력, 학습방법, 학습태도 등), 비교과적 교육지표(창의성, 시민의식, 진로성숙도 등) 등 비교과 및 정의적 지표를 교육성과 지표로 설정한 점, 더불어 학생의 변화와 함께 교사 측면의 변화(교사의 근무시간, 수업방식, 수행평가 등 제반 수업활동)를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한 점에서 정책적 시사 뿐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음. 학교책무성에 대하여 오랜 기간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해 오신 발표자의 논지에 대부분 동의하면서 몇 가지 보완적인 관점에 관하여 첨언하고자 함.
- 논문 형식 측면에서, '책무성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는 이론적 분석으로 3장 실증적 검증의 내용으로 포함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여 본 연구의 주요 결과인 실증적 검증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함. 또한 학습과정 변인이 '학습시간, 학습방법, 학습노력, 학습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함. 어떤 문항으로 측정되었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론적 분석 결과, 교육 책무성 정책이 본인-대리인 모형에서 설정하고 있는 책무내용, 유인설계, 전제 조건에 있어 구조적인 한계가 나타나고 있었음. 실증적 분석 결과에서는 학력향상중점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와 비교한 결과 학생의 학업성취 및 비교과·정의적 지표, 교사의 근무시간 및 수업활동 측면에서 어떠한 긍정적 변화도 찾아볼 수 없었음.

- 연구 방법에서 학업성취도 향상도를 국, 영, 수 “백분위점수”로 구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백분위 점수는 상대적 서열만 알려주는 지표이므로 실제로 해당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성취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 주지 못함. 따라서 백분위점수로 설정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 연구에서 결론으로 제시한 내용은 재검토되어야 함.
 - 또한 학력향상중점학교와 일반학교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백분위점수 격차에 대한 평균으로 [표6]을 구성하고 “일반학교의 전체학생은 국, 영, 수 학업성취도에서 모두 하락한 반면, 학력향상중점학교의 경우 수학에서 오히려 상승하였으며...(p. 8 하단)”으로 해석하였는데, 고2과 고1의 백분위점수 편차 평균을 +와 -로 구분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오히려 국어, 영어, 수학 학업성취도평가 점수에 대한 편차를 구해서(백분위점수 편차가 아님) 고1에 비해 고2의 학업성취도 점수가 향상된 학생의 비율이 학력향상중점학교와 일반학교 학생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보임.
 - 후반부 내용의 위계선형모형도 마찬가지로 굳이 국, 영, 수 백분위점수로 분석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 학력향상중점학교와 일반학교 간 비교를 위해서는 t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전수조사가 아니므로 연구자가 기술한대로 “표본선택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학력향상중점학교에 대한 17개의 표본학교에서 구한 데이터와 일반학교에 대한 62개의 표본에서 추

출한 데이터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위험 소지가 있음. 따라서 두 집단 간 데이터 비교를 위해 t검정을 실시하여 t검정으로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연구의 한계에도 제시한 바와 같이 분석된 자료는 학력중점학교 및 학생의 표본선택 오차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엄밀한 연구 설계, 질적 연구 등을 통한 추가 연구물이 가능해 진다면 더욱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구 결과를 보면 교육 책무성 정책이 창의성, 시민의식, 진로교육 등 비교과영역에서 부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인성교육이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시사점으로 제시한 것처럼 비교과 교육영역에 대한 측정지표 개발과 교육 책무성 정책의 책무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함. 연구 결과를 통해 비교과적 교육지표를 포함하는 성과지표의 설정과 성과분석의 필요성 제기, 주인-대리인 이론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책무목표 설정 및 인센티브 발굴 등의 필요성을 제언한 점에서 정책적 시사를 주고 있음.

■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에서 “교사에게는 학교교육의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 (p. 20)” 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는 단시간에 파악이 어려움. 따라서 교사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일시적으로 교육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교육 책무성 정책 사례에 대한 미시적 실증 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발표자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 학교가 보다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치고자 함.